

넥타이에 반영된 현대 패션 트렌드에 대한 연구

이 호 진* · 김 주 연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전공 교수*,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전공 박사과정

패션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를 반영하는 상징적 표현문화로 그 시대를 대변하며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개인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사회적 역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왔다. 더욱이 현대 사회에 들어 의복이 우리 사회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의복의 매력과 중요성은 날로 증가해가고 있다.

산업사회 이후 나타났던 남성중심 사회는 남성들에게 남자다움과 강인한 가부장적 모습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의복을 통해 견고하고 강건한 외형의 움직임이 없는 스타일로 고정되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의 남성복은 여성복에 비해 유행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그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변화의 폭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의 패션은 더 이상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남성들에게도 하나의 중요한 문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직업적 성공에 있어서도 비중 있는 요소로 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생활양식과 성 역할 행동 등의 변화는 남성복에도 변화를 가져와 활동적이면서도 색상과 디자인이 다양한 의복의 작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유행의 단 사이클화, 개성화, 패션화, 고감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남성복은 여성복에 비해 디자인이 비교적 단순하여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 정장을 입을 경우 자유롭게 이미지를 변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은 V-zone에 제한되어 있다. V-zone은 남성복 코디네이트의 포인트로서 발전하는 남성들의 미의식과 개성의 표현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적인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아이템으로 착용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단조로운 남성복에 액센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써 여성복 못지 않게 그 색상이나 무늬가 밝고 대담하게 표현하는 등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패션코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남성패션에서 중요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는 넥타이가 현대에 들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초점을 맞추어 조형적 특징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현대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가 이러한 넥타이의 조형적 특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패션트렌드와 넥타이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남성복의 미래의 변화양상을 예측하고 넥타이와 패션트렌드와의 관계를 재조명하는데 의의를 둔다.